

에바그레이즈의 對決

金 慶 昊

環境汚染防止事業團 技術專門委員

Confrontation in the Everglades

Kim Kyong Ho, Kim

Specialist, Engineering Committe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에바그레이즈의 對決(Confrontation in the Everglades)은 美國의 言論人 Philip Wylie 가 出版한 책의 題目이며, 이책에서 Philip Wylie는 에바그레이즈地方(濕地)의 自然과 그 妙를 설명하는 동시에 荒無地인 이땅이 人間을 위하여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는가를 生態學的 견지에서 興味있게 說明하고 있어, 衛生分野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環境分野에 關心있는 분들에게도 一助가 될것으로 생각되어, 이 機會를 빌어 貴誌에 寄稿하는 바입니다。」

美聯邦政府는 1970年初에, 후로리다州 에바그레이즈 國立公園에 인접한 젯트機용 空港建設에 대하여, 資金配定을 突然 中斷하기로 決定하였다. 그 사유는 「人間的 生活環境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全國的인 關心度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決定의 重要性은 직접적 인 効果보다는 象徴的인 의미에 있다 라고 原筆者는 말한다. Philip Wylie 氏는 多作한 小說作家, 短篇作家 그리고 예리한 社會批評家이기도 하다.

1. 對決의 시작

그것은 참으로 論理的이며, 常識的인 作業인 것같이 보였다. 南部 푸로리다 中心부에 있는 39平方마일의 土地가 買收되고, 1,300萬\$의 資産이 투입되어, 練習飛行用的 着陸

滑走路가 건설된 것이다. 푸로리다가 새로운 젯트空港을 극도로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했었다. 에바그레이즈 國立公園의 바로 옆에다 用地를 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처사였다. 高速道路만 뚫리게 되면, 東西 양쪽의 繁

榮으로 떠들썩한 여러 都市로부터 그야말로 손이 닿는 곳에 位置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豫想한데로는 되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실은, 數週間전부터 그 지방住民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1970年 1月중반에 와서 닉슨 大統領은 이 사실을 正式的으로 確認하였기 때문이다. 에바그레이즈地域의 잿트 空港建設에는 聯邦資金을 配定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空港과 이에 따르는 産業施設이나 住宅地域은 어딘가 다른 곳에다 建設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더우기 拒絶하는 目的이 보기에 쓸모가 없는 荒野地域을 구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거대한 澤地, 얇은 水中에 무성한 갈매의 無限한 荒無地를 잿트機의 騒音과 排氣가스에 의한 汚染으로부터 保護하며, 또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工場의 廢棄物로부터 保護하여야 할것인가. 140萬에이카의 巨大한 진흙탕은 한없는 제로(Zero) 즉 無價値한 것이었다. 自動車의 故障으로 할수 없이 내리는 觀光客은 오싹한 氣分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에바그레이즈地方은, 自然界的 恐怖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악어도 있고, 毒蛇도 있으며, 거미와 같이 큰 모기의 大群과 벌과 같이 쏘는 파리가 亂舞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自然이나 野生動物의 保護地域이 구제된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불도저가 侵入하기 直前に 손을 써서 中斷하게 된것도 흔히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이미 進行된 工事의 規模, 投入된 資金量,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豫想이 일거에 허물어진 것등에서 전례가 없는 事態였다. 요컨대 닉슨政權이 방대한 商業投資와, 일반의 요구에 반대하여 손을 쓴 것이 하나의 새로운 것이며, 보통의 경우라면 잿트空港과 그 주변의 호텔, 슈퍼마켓, 기타의 文化的인 施設이 航空旅客의 大群을 유

치하여, 현재의 에바그레이즈 國立公園을 매년 방문하는 100萬정도의 觀光客이 떨어뜨리는 돈보다 50~500배에 달하는 利潤이나 稅收를 가져오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重要な 것은 「先例」로서의 意味이다.

自然環境의 保護論者は 「生態學」의 찬피운으로서, 數字상으로는 아마도 100對1의 劣勢에 있으나, 긴 세월에 걸쳐 「人間보다 鳥類를 소중히 하는 미치광이」라는 험담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왔다. 이들 「進歩의 敵」이 마침내 優位를 획득하게 될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것이다.

2. 일시적인 勝利

이 勝利는 물론 全面的인 것은 아니다. 이미 설치된 着陸滑走路는, 새로운 建設 豫定地가 물색될 때까지, 그대로 練習飛行用으로 사용하기로 한것이다. 그러한 飛行活動이 生態學的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것인가는 豫想할 수 없다. 그러나 잿트空港 반대를 위하여 싸워 온 사람들에게는, 大統領의 發表는 하나의 出發點으로 된다. 또한 出發點 이상의 意義로서, 에바그레이즈地域의 믿을 수 없을 만큼 鳥類의 生活에 魅惑된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여야 한다. 또는 狩獵用的 動物을 보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우기 自然의 荒野의 見本을 子孫들에게 남겨두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南푸로리다의 에바그레이즈地域이 獨特한 生態學的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他人에 전달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空港反對派가 생각해낸 論理的인 反對의견의 하나는, 용이하게 表明할 수가 있었다. 요컨대 沿岸地方에 마구 퍼진 여러 都市는, 地下의 含水層에서 물을 푸고 있으나, 그 水源

이 이 地域의 開發에 따라, 汚染될 우려가 있다. 數兆가동에 달하는 이들 地下水源은, 南 푸로리다의 多孔質岩의 겨우 100피드 밑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水路의 堀削이나 우물 파기 工事때문에, 塩水가 東西로부터 侵入하여, 天然의 貯水槽가 이미 크게 縮小되고 말았다. 한편 反對意見으로서 「설혹 地下水가 汚染된다 하여도, 그것에 대치하는 水源이 北方에 있다」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있었으나, 貴重한 地下水源에 대한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議論이 소리높이 되풀이 되고, 鳥類의 愛好者나 狩獵家들의 경고가 떠들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今日의 美國에서 급속히 높아진 環境汚染에 대한 反對가 없었다면, 결국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후 「生態學」이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냈다. 議會에서는, 議員들이 하룻밤 사이에 生態學者로 變身하게 되었으나, 2~3年前에는 이 用語를 만족하게 定義할 수 있는 議員은 별로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政治的인 壓力을 갖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生物과 그 環境과의 關係」라고 하는 生態學의 概念은, 議員 뿐만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제도, 理解할 수 없는 점이 적지않다. 에바그레이즈地方은 生態學的으로 말하여, 地球上에서도 稀貴한 존재이며, 매우 복잡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푸로리다의 地圖를 보게 되면, 그 까닭을 알게 된다. 푸로리다半島의 남쪽의 1/3은 「에바그레이즈地方」이라 明記되어 있다. 그러나 이 廣大한 濕地는, 실제적으로 3種類의 수령으로 區分되어 있다. 가장 北端은 오키쵸피호로 시작된다. 이것은 미저지근한물이 담겨져 있는 水深이 얇은 湖水로서, 700平方마일 以上の 面積을 가지고 있다. 에바그레이즈地方(永遠한 濕地帶라는 의미)을 천천히 흐르는 물은, 이 湖水를 「水源」으로 하고 있

다. 作家 마조리·스톤맨·다그라스가 이 흐름을 가리켜 「草河」라고 부른 것은, 매우 적절한 말이다. 에바그레이즈地域의 最初의 部分을 이루는 이 地方은 「빅·사이프레스·스란프」(大杉의 늪)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나, 大木은 현재 오-듀본協會의 所有인 일부의 記念物을 제외하고는 전부 採伐되고, 사이프레스도 樹齡이 많은 것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成長을 저해당해 위축되어 있다. 다음에 位置한 第2地區는 갈대나무의 地域이다. 원래는 늪지의 名稱이었으나, 그 지방 전체의 이름으로 되고 말았다. 전체적으로 얇은 水中에 무성한 茶色을 띤 갈대의 草原이 限없이 계속되며, 군데군데에 「한목크」라고 불리우는 장굴이 둥근 지붕같이 솟아 있다. 갈대나무라고는 하나 풀이 아니며, 깔죽한 灌木으로서, 人間이 무리하게 그속을 밀고 나가면, 우선 옷이 찢어지며, 다음엔 피부가 갈라지게 된다.

3 森林과 水路

第3의 늪地帶는, 망구로브의 숲이다. 이 숲은 地上最大의 規模를 갖고 있으며, 迷路와 같이 된 水路가 파도 치듯하며 分岐되어 계속되며, 그 사이에 감추어진 넓은 湖水가 펼쳐져 있다. 망구로브의 숲은 글자 그대로 한치 앞도 나아갈 수 없으며, 뱀과 같이 구부러진 뿌리나, 서로 엉킨 가지가 水中에서 버티고 있다. 그 사이를 천천히 흐르는 물은 점차 鹽分을 더해가며, 마칩내는 진짜 塩水로 되어, 어느 사이엔가 바다와 연결된다.

이러한 3種類의 늪地帶가 에바그레이즈地方을 構成하며, 半島 전체를 끝에서 끝까지 점유하고 있다. 面積으로 쳐서 5,000平方 마일 以上の 이 늪地를 적시고 있는 江은, 世界에서 가장 흐름이 느리며, 가장 얇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人間이 손을 대기 시작한

후 부터는, 가장 信賴性 없는 江으로 되어버렸다. 이것과 形態만이라도 같은 地域은, 地球上에 존재하지 않는다. 南푸로리다는, 극히 가벼운 傾斜를 가진 巢子쟁반과 같이 생겼으며, 周邊部の 海岸은 낮고 거기에 砂丘나 오-라이트(魚卵狀岩)라 불리우는 石灰質의 바위가 약간씩 솟아 있어, 建物の 基礎를 이루고 있다. 東西 兩側에는 都市와 그것에 부속된 거리가 念珠처럼 달려 南쪽으로 계속되어 가며, 그 앞에 전州的 幅을 가로지르는 江이 海水와 하나가 되는 部分으로 되어 있다. 이곳이, 현재의 國立公園과 바다와의 境界이다. 갈대의 平原을 군데군데에서 中斷시키고 있는 「한목크」는, 이러한 오-라이트의 突起가 原因으로 되어 있으며, 길이가 數마일에 달하는 것으로부터 回轉木馬 정도의 적은 것까지 있다. 자라있는 나무는 여러가지로서, 西인도産의 종류를 비롯하여, 한때 풍부하게 자라있던 마호가니의 나머지 대부분이 그속에 있다.

물론, 에바그레이즈地方에서도 建設은 할수 있다. 벌써 많은 團地가 그곳에 進出하였다. 近代的인 機械를 사용하면, 이 廣大한 濕地를 大都市圈으로 변하게 할수 있다. 建設用地的 埋立에 사용하는 土砂를 퍼낸 곳은, 큰 水路나 늪으로서 남게 되므로, 베니스에 匹敵하는 都市가 생기게 된다. 아마 1,000萬 이상의 人口를 收容할 수 있는 規模로 될것이다. 이러한 에바그레이즈의 濕地가 巨大한 물의 都市의 밑으로 소실되었다 하여도, 2~3의 下等生物을 제하고, 人類에게는 아무런 損失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4. 왜 進歩를 妨害하는가

이와같이 貴重한 土地를, 풍부한 潛在力的發展으로부터 새삼스럽게 지키고자 하는것은, 왜일까. 특히 沿岸地方이 벌써 빈틈없는 시멘

트의 壁으로 굳혀져 있고, 현지 住民의 強力한 壓力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큰 疑問으로 남게 된다. 왜 進歩를 妨害하는 것인가. 그 進歩는 벌써 濕地帶에 큰 被害를 주었으며, 國立公園까지도 포함하여 그 地域을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를 일이다. 陸軍工兵隊는, 膨大한 「治水地域」을 北部에 建設하여, 堤防을 설치한 만모스貯水池로 雨季의 빗물을 저장하여, 都市의 水道나 農業의 灌溉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貯水池는 또한 洪水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乾季에 動植物의 生命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을 國立公園에 供給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治水地域」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가뭄 때에는 國立公園이 거의 全滅할뻔 하였다. 國立公園의 숨통을 끊을뻔한 것은 工兵隊나 美國 국민에게 있어서도 「有史以來」의 일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비가 내려, 이 悲劇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끼쵸피湖의 南쪽에 있는 흙탕地帶는, 雪糖수수나 겨울 野菜의 재배사업을 可能케 하는 하나, 그렇게 簡單하지는 않다. 날날이 흐트러지는 黑色의 땅을 처음 보는 農民은, 中西部의 平原에 있는 黑土와 같은 풍요한 땅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判斷과는 달리 이땅은 純粹한 腐植土로서 鑛物質이 빠져 나가고 없기 때문에, 肥料를 大量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도랑이나 水路 때문에 乾燥狀態에 놓이게 되면 酸化하여 글자 그대로 타서 날아가 버린다. 이러한 까닭에 排水溝를 점차 깊게 파 내려갈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그 깊이는 10~20年후가 되면 岩盤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깊게 파내려 갈 경우에는, 周圍의 바다로부터 塩水가 侵入하게 된다. 따라서 南푸로리다는 갈폴니아 南部와 같이, 北方으로부터 물을 끌

어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北部에 大規模로 설치된 貯水設備에 의한 治水는 또한 國立公園이나 망그로-브地帶에 다 鹽分을 가진 물의 減少時期를 가져오게 하였다. 많은 물고기와 여러가지 甲殼類는, 眞水에 의한 稀釋이 없으면 繁殖할 수가 없다.日照에 의한 새로운 混生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繁殖에 惡影響을 가져온다. 그러나 營利的인 漁業은 쇠퇴하여도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쇠퇴하고 말았으나, 公共的으로는 그다지 損害가 없었다. 또한 재미로 하고 있는 낚시용의 물고기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繁殖한다.

5. 生物界의 驚異를 만들어 내다.

이러한 까닭에, 어쩔수 없는 不可缺이란, 에바그레이즈地方에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 驚異에 찬 地域의 일부를 標本으로 하여 國立公園으로 指定하고자 하는 기나긴 싸움은, 일반적인 理由에서 많은 사람들의 反對에 봉착했다. 에바그레이즈地方에 어떠한 商業的 價値가 있는가, 想像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어쨌든 土地이므로, 民間의 購買者에게 開放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 廣大한 地域의 「生態學的 環境」의 場所가 있다고 指適하여도, 이들 많은 사람들은 納得하지 않았다. 요컨대 한 種類만의 植物이 모여있던 그곳, 한 場所에서만 存在하는 것이 있다. 또한 科學者가 아직 모르는 여러가지 生物들이 그곳에 生息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더우기 野生的 世界는 想像을 넘는 것이다. 새오라기나 다오기, 各種의 오리, 뱀이나 七面鳥, 표범, 특별한 種類의 여우, 백로나 쇠물닭, 사슴, 꿀, 수달, 그리고 數없이 많은 種類의 꽃, 蘭, 空氣植物, 毒樹 등이 살고 있다.

이와같은 生物界의 驚異를 無限하게 擧고 있는 이 地域을 保存하면, 어느때가는 새롭고 貴重한 藥物의 天然供給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렇게 現實性이 없는 것도 아니나 製藥會社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것을 일삼고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自然의 藥物은 키니네로부터 페니시링에 이르기까지, 이미 合成되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奇蹟의 新藥은 最初, 自然界에서 發見된 것이었다. 製藥會社의 反論은, 그 點을 闢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教養이 있다고 보아지는 사람들을 오듀폰協會의 코-크스크루·스완프 地域으로 안내하였다고 하자. 厚生의 芙蓉이 만발하여 있는 것을 보이고, 주위가 食卓 정도로 되는 큰 杉木을 가리켜 주고, 상대방에게 時間이 허용하는 대로 珍貴한 것, 豪華로운 것,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것을 紹介하고, 또한 그것들이 人類 全体에 대하여, 어떠한 엄청난 可能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여도, 상대방은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라는 얼굴을 할 뿐이다.

樹木은 木材에 지나지 않는다. 늪지는 惡臭을 발하는 病害의 소굴로 된다. 荒野는 開墾하여야 하며, 江은 汚物이나 廢棄物 處理에 이용하면 된다. 湖水는 쓰레기를 버리는 場所, 輸送路, 뱃노리의 場所이다. 鑛脈이나 油脈의 위에 있는 自然의 風物은 제거하든가, 汚物 밑에다 埋立하면 된다. 그리고 진흙탕은 물론, 모든 것을 乾燥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土地改良인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은, 그것에 反對하는 사람들까지도 「鳥類를 보기 위하여」라든가 「狩獵을 위하여」라는 表面的인 理由에서, 그러한 土地改良을 하고 있으며, 극히 일상적인 일로 되어있다.

에바그레이즈地方은, 人間에 不可缺한 環境

에 대하여 重大한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廣大한 늪지대는, 人類가 生存을 계속하기 위하여 保存을 필요로 하는 野生環境의 극히 적은 見本에 지나지 않는다. 「汚染防止」의 口號가 空港反對 쪽으로 기울어진 것같이 생각되나, 汚染防止의 決定이라 하여도 보편적으로 볼때 썩 좋은 表現은 아니다.

6. 無視된 人權

人類가 깨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이 에바그레이즈地方의 鬪爭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汚染으로부터 解放된 環境을 획득하는 權利가 人間에 있어 不可缺한 것이다」라는 사실이다. 이 權利를 확보하지 않는한, 生命과 自由와 幸福을 추구하는 人間의 움직임은, 멀지 않아 不可能하게 되고 말것이다.

대부분의 美國人은 현재 都市에 살고 있으며, 過半數는 生態學的으로 無知하다. 舗裝된 地面에서 一步만 밖으로 나서면, 곧 不安하게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나무나 野生꽃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하물며 근처의 森林에 사는 動物에는 친근감이 없다. 이러한 精神상태는, 人類의 未來에 대하여 不吉한 徵候를 보여준다. 그것은 人間의 生存을 지탱하고 있는 世界에 대하여 머리가 비어 있으며, 敵意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속에 있는 말(藻)부스러기를 보면 쓰레기라고 말하나, 實은 그것이 人間이 숨쉬는 空氣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번쩍이는 작은 물고기는 小河川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이와같이, 人類가 生存을 계속하는 可能性은 「술술부는 바람이 맑은가 어떤가」하는 사소한 것에도 연관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은 汚染原因物을 코로 냄새 맡거나, 귀로 듣거나, 피부로 感知하거나, 粘膜의 刺激으로 알수 있는 것만을 追放하고자 한다. 그러나 五官으로 感

지할 수 있는 汚染物質이 전부 除去된다 하여도 汚染防止는 1%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人間은 큰 幻想을 계속 안고 있다. 自然은, 人間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人間의 손으로 征服 내지는 支配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人間이 自然을 그들 手中에 넣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그것은 不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自然界의 바람이나 비, 綠色의 植物이나 光合成作用, 새나 벌레, 7大洋 등을, 누가 管理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人間이 아니며, 自然만이 永遠히 그 支配權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에바그레이즈의 問題는, 人類가 또한 지금부터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 다음과 같은 眞理를 典型的인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人間이 所有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人間의 손에 있는 것은 다만 所有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利用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敎訓이 그것이다.

그것이 生態學的의 法則이다. 共產主義나 資本主義에도 적용되며, 貧困한 國家에도 풍부한 工業社會에도 適用된다. 이것은 하나의 絶對의 眞理인 것이다. 에바그레이즈地方은, 예컨대 그 權利書가 우리들 손에 있다고 하여도 土地 그 자체는 한치라도 우리들의 所有로 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다만 이 不可思議한 土地의 利用을 許容받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의 所有物은, 자기의 피부내에 있는 肉체에 한정된다. 더우기 그 肉체를 求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자기의 生命에 不可缺한 生物體의 連鎖作用을, 무엇이든 求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젯트空港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聯邦政府의 決定은, 그 行爲가 갖는 象徴的인 의미에 價値가 있다. 象徴의 내용이 理解된다면, 그 價値는 測定할 수 없는 매우 큰 것이라 할수 있

다. 왜냐하면, 人類은 곧 數10億弗에 달하는 開發의 機會도 과감히 버리고, 그 以上의 大規模 計劃까지도 변경하여, 「濕地를 구한다」는 애매하나마 特定の 目的을 追求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理由는 잘 모른다 하여도, 더욱 큰 目標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7. 人類는 살아 남는가.

예컨대 여러가지 生態學者가 그 知識을 총 動員하고, 또한 여러가지 科學에서 資料를 더 추가한다 하여도, 어떠한 生物이나 生活씨스템이 人類의 生存에 不可缺한가를 豫想할수는 없다. 우리들은 人類의 生活를 지탱하고 있는 生物의 복잡한 下部機構에 대하여, 너무나 知識이 결핍되어 있어, 어떠한 野生動物, 雜草, 害虫, 또는 捕食動物이라도 絶滅시키는 것은 危檢하다. 地球上의 生物을 養育하는 機構의 일각만이 무너져 버려도, 人類에게 致命

的인 타격을 줄수 있을지 모른다. 人類가 一定期間에 걸쳐 生存을 계속하는 것을, 自然은 결코 保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自然界的 秩序에는 많은 微妙한 점이 포함되어 있어 그 하나의 機構가 무너지거나 뒤틀어지게 되면, 곧 人類를 絶滅시키는 自然의 暴威가 크게 發揮될 가능성이 있다. 人類에 있어, 不可缺한 機能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自然界的 동일한 地域은, 다른 곳에도 無數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問題는, 그것이 알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種類의 問題에 대하여 가장 重大하고, 무서우며, 壓倒的인 難點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들은 知識이 없다. 예컨대 에바그레이즈地方을 전부 舖裝하였다 하여도, 우리들은 아마 現在 정도의 生産과 繁榮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아니된다.